

# 사무실과

## 쾌적환경 (2)

가톨릭 醫大 教授 김 정 만

### Ⅲ. 기술적 과제

#### 1. 일부건물의 적정면적규모

Open plan ( 방과 방 사이에 간막이를 하지 않는 설계양식 ) 의 장점을 살리기 위해서는 일부 건물당 어느 일정 이상의 기준 ( 면적의 하한 ) 을 유지하여야 한다.

적정규모에 관해서는 일정한 기준이 없이 전문가 각각의 경험을 토대로 표 2 와 같이 의견을 달리하고 있다. 이외에 Bertelsmann Verlag의 Organization Director 에서 최대 2,500  $m^2$  까지의 Open plan 의 경험이 있는 Dr. Smidth 는 Open plan 의 최소치는 3,000  $m^2$  라고 얘기하고 있다 ( Bürotechnische Sammlung, May 1962 ).

Funke 는 규모가 Open plan 을 정의할 때 중요한 요소라고 주장하고 있다 ( Bürogebäude und Büro betrieb-Office Building and Office Management Hamburg, 1965 ). 최소면적을 600  $m^2$ , 최소폭을 20 m 로 하고, 인원수 면에서는 80 명이 최대정원으로 정하고 있다. 소음대책의 면에서는 인간을 흡음재의 일부로서 이용하기 위

표 2. Open plan 사무실공간의 일부 건물당 추정치

건축가	추정치 ( $m^2$ )
Tiedman	> 160 (16명)
Henn	> 200 (1955) > 600 (1964)
Boje	> 200
Fisher	> 250-3,000
Reznik	> 324 (18×18m)
DAG 독일 노동조합 (Deutsche Angestellten Gewerkschaft)	> 400 (20×20m)
Schmallenbach Gesell- schaft	400-1,300
Gottschalk	600-1,000
C.Christiansson	> 500
Rodius	> 400 (20×20 m)

해 20~30 명이 최소정원이라고도 한다.

심리적인 면에서는 한군을 최대 50명으로 정하는 것이 일반적 규모로 좋다고 한다. 50명이라는 수는 그 집단중에서 개인의 존재를 확실하

파악할 수 있는 수이다.

경험적으로는 일부 건물당 최소면적 규모로서 200㎡가 타당한 값이라 생각된다. 그러나 Open plan의 이점을 충분히 살리자면 500㎡는 필요하겠다.

## 2. 제 1의 요소 Layout

Layout 때 배려해야 할 점은 3가지가 있다. 우선 첫째는 융통성 (flexibility)이다. 즉 작업위치 (Work station)을 자유로이 배치하고, 전기·조명·전화 등도 조직개편, 업무확대에 따라서 자유로이 배치할 수 있어야 한다. 두번째는 공간의 주체성이다. 직원 각자가 회사 내지는 자기가 속한 부·과라는 하나의 큰 공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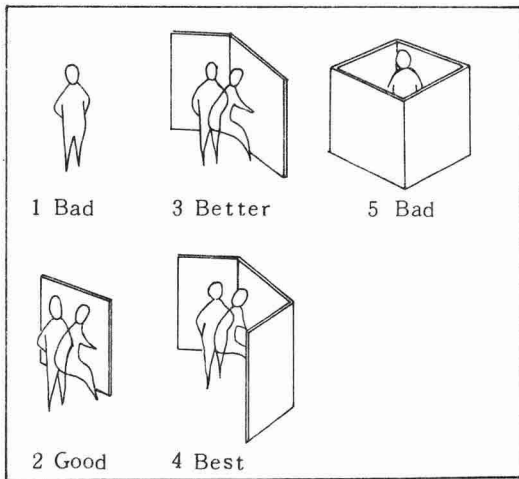


그림 1. 사생활—조직전체사이의 관계

체 (Community)에 대해 소속의식, 주체성을 느끼게 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사생활 (privacy)과 조직전체사이의 균형이다. 한사람 한사람의 개성이 존중되고 일에 전념하기 위해서는 사생활이 중요시되는 공간을 바란다. 또 한편으로는 일의 흐름, 대화소통이 중요시 되는 공간을 바라기도 한다. 이같은 사항을 조화시킨 예가 그림 1의 4가 가장 좋다. 사생활을 지켜주기 위해서는 무엇인가에 둘러싸이는 것

이 좋지만 그것이 지나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Screen·화분·캐비닛 등으로 둘러 싸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 Screen·화분 등은 그 색채에 따라 좋은 심리적 효과를 줄 수 있고 음향적으로도 유효하다.

Layout 작업의 기본적 사항은 grouping과 동선계획이다. grouping은 Communication의 필요도·빈도·성질에 따라야 한다. 군으로서 구별해야 할 것으로는 다음의 Zone이 있다.

### ① management zone

관리자와 방문자에게는 적당한 privacy와 쾌적성이 필요하다.

### ② silence zone

일의 내용에 따라서는 소음에 의해 방해받지 않는 zone이 필요하다.

### ③ noise zone

타자기·팬치기·컴퓨터·텔레크스 등 소음을 발생시키는 기기류는 한 장소에 모으고 음향적으로 소음문제를 처리한다.

### ④ break zone (휴게실)

휴식의 필요성은 개인마다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하루에 2회, 10~15분 정도의 휴식으로 충분하다. 휴게실의 거리는 25~30m 이내로 한다. 전망이 좋은 장소에 배치하고, 가능한 가구·색채·조명 등은 작업장소와 구별하여야 한다.

사무실전망의 설계의 본질은 자유로 불정형 (不整形)한 리듬에 있다. 그러나 시각적인 관점에서만 정해서는 안되기 때문에 깊은 지식과 충분한 경험이 필요하다. layout은 시선방향이 서로 교차되지 않도록 한다. 각자의 작업위치에서 10m 이상은 볼 수 없도록 한다. Screen은 친밀한 분위기를 조성키 위해 이용된다. 또 집단의 본질을 살리기 위해서 군마다 책상 방향을 바꾸고, 가구의 색채를 바꾸기도 하고 수직면의 소재 (screen·기둥·카텐 등)에 색을 넣는 경우도 있다.